

윤호중 장관,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 없도록 관계기관 긴급회의 개최

- 올여름 가장 많은 비, 선제적 중대본 가동 및 9개 시도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호우 특보 발표 시 신속하고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 가동 당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일(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23개 중앙행정기관(국조실, 행안·과기정통·교육·기후·국토부 등), 16개 광역 지방 정부, 5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수도권,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7.18~19일 예상 강수량(mm): 수도권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도 100~200(많은 곳 강원중·남부내륙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충남·북 북부 250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전북북서부 100), 경상권 50~100(많은 곳 경북북부 150)

이에 따라 윤호중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호우 대비 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밤·새벽 취약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휩쓸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위험이 우려되면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반지하주택과 노후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저수지·소하천 등 위험시설은 실시간으로 살피고, 위험징후 감지 시 즉시 출입을 막는 한편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호우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야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특보발령지역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무원,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장 대응 인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충분한 안전조치 후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지방정부의 대피 안내 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서기관	현종일 (044-205-5234)
		담당자	사무관	전혜숙 (044-205-5231)

호우·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산 사 태 → 붕괴 위험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
공무원, 이·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하천 재해 → 휩쓸림 위험



비 오기 전 점검

야외활동 자제
물에 잠긴 길 이동 시 **발밑 조심**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하천변, 배수로, 해안가 근처 **피하기**

지하공간 침수 → 침수 위험



비 내리기 전 배치

지하공간에서 **즉시 대피**,
수방자재 **사전 배치**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비 내리기 전 이동



지하공간, 지하차도, 침수도로 **피하기**

호우·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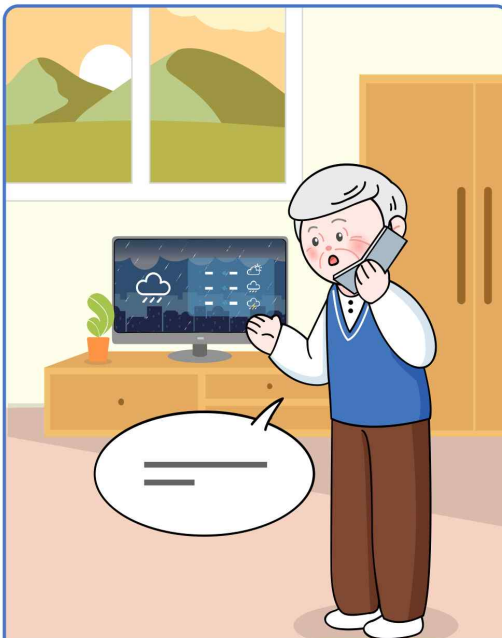
이렇게 행동하세요!

국민안전24



- ① 언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나요? → 오전 6~12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 ② 휩쓸림이나 침수사고는 어떤 행동 중에 많이 발생했나요? → 이동하거나 재해예방 활동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 ③ 산사태로 인한 매몰사고는 어떤 상황에 많이 발생했나요? → 집안에서 일상생활 중에 많이 발생했어요.
- ④ 차량은 비교적 안전할까요? → 주행중인 차량/이동 주차 중에도 인명피해가 많아요.

산지



- ① 어두워지기 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② **기상정보 확인**하고 가족, 이웃과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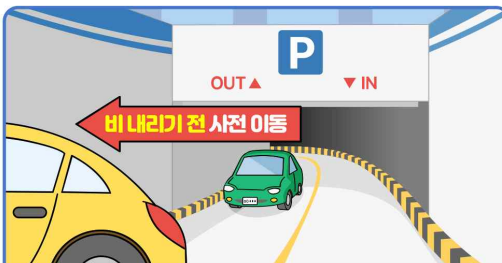


산비탈, 급경사지 근처 피하기
공무원, 아·통장 등 대피 요청 시 대피소로 이동



야외활동 자제하고
하천, 해안가 근처 피하기
비 내리기 전 배수로 점검, 비 내릴 땐 점검 자제

차량



< 비 내리기 전 >
침수 위험 있는 곳에 **주차된 차량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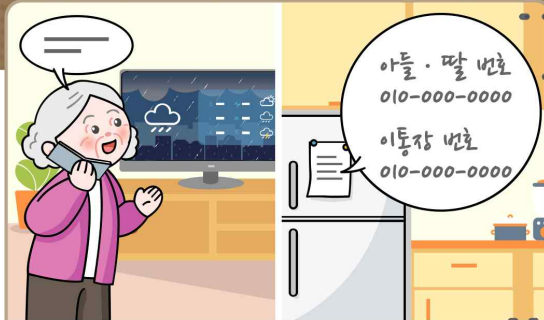
< 비 내리는 중 >
관리자의 통제를 준수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피하기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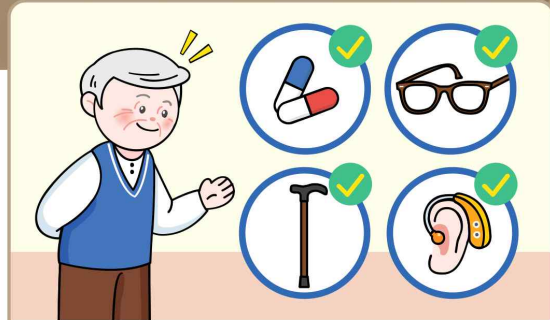
비바람 올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주변 어르신께 알려주세요



날씨 소식을 자주 듣고, 가족과 연락해요
가족, 이웃, 이·통장 전화번호 집에 붙이기



먹는 약, 보청기, 지팡이 미리 챙겨요
안경, 전동휠체어 배터리 등 미리 확인



대피소와 대피소 가는 길 미리 알아봐요
가까운 대피소 읍·면·동사무소에 물어보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요
이웃과 함께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이동하기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이동해요
공무원, 이·통장이 위험하다고 하면
마을회관 등 대피소로 이동하기



하천 주변, 산길, 논, 배수로는 위험해요
배수로/논둑, 하천/해안가, 산 주변 등
위험한 장소에 접근금지

낙뢰

이렇게 행동하세요!

국민안전24



30 - 30 안전 규칙 : 번개가 친 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대피
마지막 천둥소리 후 30분 기다리고 이동



낙뢰 예보 시 야외활동 자제
등산, 낚시, 골프, 사이클, 러닝 등 자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대피
낮은 자세로 사람 간 5~10m 떨어져서 이동



나무 아래, 전신주, 물가 근처 피하기
산 위 암벽, 높은 구조물, 해안가, 운동장 등 피하기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 사용 자제
창문, 자전거, 금속물체 등 주의



전자제품, 흐르는 물 사용 자제
전자제품 사용 시 감전 주의 / 샤워, 설거지 등 물 사용 자제



피해자 발생 시 119 신고 후 응급처치
호흡/맥박 확인 후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실시
화상, 골절, 시정각 확인